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4. Vol. 25. No. 1. pp. 5~27.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4.02.72.05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김정민* · 송수지**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은 상관이 있는가? 둘째,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중1 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에서 표집 된 중학교 2학년 2248명이 연구대상이었다.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울이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은 부적인 상관관계,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주의집중 문제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

* 연세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k-okdol@hanmail.net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변화, 진로 선택,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적응적 행동을 하기 쉬운 시기이다. 이들이 보이는 정서 문제와 학교 부적응은 학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초·중·고교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사회적 낙오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전경숙, 2006).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로는 부적응, 가사, 품행, 질병 등이 있는데, 이 중 부적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부적응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기존의 규범, 사회적 관계, 학업 등에 맞춰서 적절히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규범, 사회적 관계, 학업 등을 자신에게 맞춰 변화시키지 못하여 균형 있고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이동훈 외, 2007).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우울, 주의집중, 공격성, 자기 통제력, 자아존중감, 통제 소재,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등이 연구되어 왔다(오승환, 2009; 이경상, 2011; 이경화, 손원경, 2005; 이귀옥, 이미리, 2013; 좌현숙, 2012; 황성혜, 2010).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의집중 문제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의집중은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의식을 모으는 능력으로,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그 자극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주의지속 시간(attention span), 한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주의를 옮길 수 있는 주의 이동(attention shift)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이대식, 황매향, 2011). 주의집중을 잘하는 학습자는 오랜 시간 과제에 몰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고 학습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한다. 주의집중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주의집중 문제를 주된 특성으로 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주의력결핍 이외에도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1차 증

상으로 나타내는 장애로, 많은 연구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보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u & Gau, 2013; Herman & Ostrander, 2007; 김형숙, 2009).

우울은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기분으로, 임상적 우울을 가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이다. 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30.5%, 자살 생각을 한 청소년은 18.3%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감 경험 및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음주율이나 흡연율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2). 청소년기 우울은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물질 관련 장애, 섭식 장애와 흔히 연관되어 나타난다(이정선, 이형실, 2012).

주의집중 문제가 우울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 학생의 학교 생활적응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동훈(2009)은 우울, 불안 증상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상이 잘 인지되지 않고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기능과 적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늘어나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있는 개인 내 변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주의집중과 우울이다(김명식, 2008; 김아영, 이명희, 2008; 오승환, 2009; 이귀옥, 이미리, 2013). 주의집중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 정서 문제, 부적응 등의 문제는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고 우울도 사춘기를 전후에 급격히 증가하므로, 청소년기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 우울이 여러 변인 중 하나로 다루어질 뿐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련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가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을 위한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은 상관이 있는가?

둘째,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 될 수 있는데,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내재적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곽수란(2006)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요소로 유안진, 이점숙과 서주현(2004)은 교사적응, 교우적응, 규칙적응을, 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제시하였으며, 김정남(2013)은 학교적응척도를 개발하면서 학업, 심리적 안정성, 사회관계, 학교생활의 4가지 하위 요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요인, 학교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있다. 가족 요인은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등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감독과 애정이 클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이희은, 문수백, 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이지민, 2009). 학교 요인은 친구관계, 교사지지 등으로 또래와의 친밀감이 낮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고(이정은, 조미형, 2007), 교사애착이 높아질수록 학교부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2011).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을 잘 할수록, 공격성, 사회적 위축감, 우울감이 적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졌다(이귀옥, 이미리, 2013).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서 보호적 요소로 나타났고(이희정, 조윤주, 2010), 높은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며(한신애, 문수백, 2011),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이경화, 손원경, 2005).

2.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주의집중은 인지 과정과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과제 수행 도중 지루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관리하며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은 세부적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로 인해 실수를 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가 쉽게 분산되고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며 공상을 자주 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업,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주의집중 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는 다른 개념이지만 학교생활적응, 주의집중과 우울의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주의집중 문제만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연구를 포함하여 주의력결핍 증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의집중 문제는 낮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 박춘성과 홍경화(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부족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집중력 부족을 지닌 학생들은 학습부진, 수업반항문제의 공존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박진성과 서만수(2004)의 연구에서는 성적 수준별로 주의집중을 비교한 결과 상위 성적의 학생이 중 하위 성적의 학생보다 주의집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주와 조윤경(2008)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증상이 학업수행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Tymms와 Merrell(2011)의 연구에서는 부주의가 수학과 읽기에서 낮은 성적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을 획득하려면 상대방이나 과제의 단서에 주의집중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집중 문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회인지 기술의 초기 학습을 어렵게 한다(신현숙, 2009). 또한 주의집중의 문제는 관찰학습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Hoza, 2007). 최진오(2010)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은 교우유대성과 교사유대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김민주와 하은혜(2013)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상이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 경험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싱

글과 김은정(2003)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조망수용, 공감, 고통에 대한 반응성이 부족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나타냈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었다.

3.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DSM-5(APA, 2013)에 따르면 우울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감소, 체중이나 식욕의 감소, 수면패턴의 변화,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체, 피로, 무가치함,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살사고나 시도가 특징이다.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이 성인기의 우울증을 예측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Hankin, 2006; Lewinsohn, Rohde, Seeley, Klein & Gotlib, 2003; Pine, Cohen, Cohen & Brooks, 1999).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증도 성인기 우울증과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진단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우울한 기분을 갖기보다는 쉽게 흥분하거나 초조하거나 과민한 기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또한 우울한 청소년들은 위험한 문제 행동들을 통하여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김청송, 2007).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 자살생각, 가출충동,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공격행동, 흡연, 학업소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3; 박소영, 조성희, 2011; 변영순, 이혜순, 2008; 서창민 외, 2012; 서한나, 2011; 신현숙, 2012; 신효정 외, 2011; 황윤원, 이동훈, 2011).

우울은 학교부적응을 일으키는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이다. 김명식(2008)은 중학생 3,03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영역 중 학교공부와 학교생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오승환(2009)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음주・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학교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최지원과 박영숙(2011)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MMPI-A 특성과 학교생활적응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무기력함, 공격성, 불안 및 우울, 과민함, 낮은 포부와 성취욕구 그리고 높은 자극추구 등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귀옥과 이미리(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Flöjd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낮은 학업성적, 주의집중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숙제에 대한 부담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주의집중 문제로 인해 학업에서 실패하고, 부모나 교사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되기 쉽다.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자살이나 폭력적 행동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위험성을 높인다(Treuting & Hinshaw, 2001).

최진오(2011)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성향이 학생들의 우울, 불안, 적대감, 신체이상화와 같은 정서적 문제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영, 김호영과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상을 많이 호소할수록 우울 증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홍석, 송연주와 이동훈(2013)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이 스트레스,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훈(2009)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증상이 과잉행동・충동성 증상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다. 신현숙(2009)은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사회적 유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고,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가 사회적 유능성 결핍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의집중 문제와 품행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Herman과 Ostrander(2007)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 문제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어린 나이에 주로 발병하는 신경학적 장애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집중 문제를 우울의 선행변인으로 간주하였고, 연구 결과 주의집중 문제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품행 문제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2차년도 자료이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실시되는 종단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1 패널이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인 2011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에서 표집된 2351명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101명의 자료와 학교에 다니지 않는 2명의 자료를 제외한 2248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남아는 1,134명, 여아는 1,114명이었고, 남학교 학생은 237명, 여학교 학생은 277명,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은 1734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주의집중 문제

주의집중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7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심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91이었다.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5문항, 학교규칙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5문항,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5문항,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5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66이었다.

3) 우울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의 10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0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가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의 경우에는 AMOS 21.0을 사용하였고, 모형 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χ^2값, RMSEA, NFI, CFI, TL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은 .35의 정적 상관을,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 적응은 -.32의 부적 상관을,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은 -.23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주의집중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고, 주의집중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낮았으며,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낮았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은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야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다(Kline, 2005). 표 1을 보면 왜도는 절대값 .001~.308, 첨도는 절대값 .246~.648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만족시킨다.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N=2248)

변인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
주의집중 문제	-		
우울	.35**	-	
학교생활적응	-.32**	-.23**	-
M	16.71	19.30	56.80
SD	3.72	6.15	8.18
왜도	-.001	.308	.006
첨도	-.246	.648	.479

**p< .01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모형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NFI, CFI,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가진 것으로, RMSEA는 〈.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10이면 보통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RMSEA .067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 수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47~.43으로, 변인들 간에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58~.84로 모두 .5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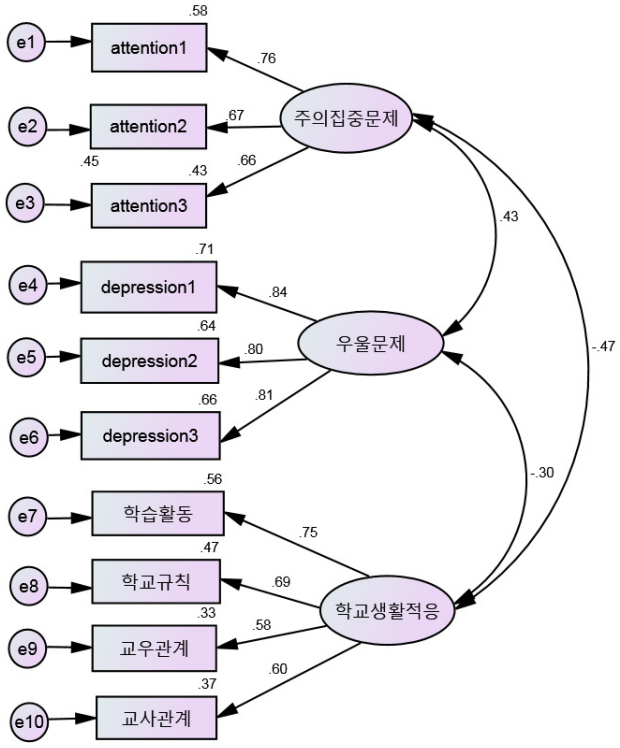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표 2

측정모형 부합도 지수

모형	χ^2	*df*	N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358.28	32	.952	.956	.939	.067

3.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 적응 간에 우울

이 매개하며, 주의집중 문제가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2,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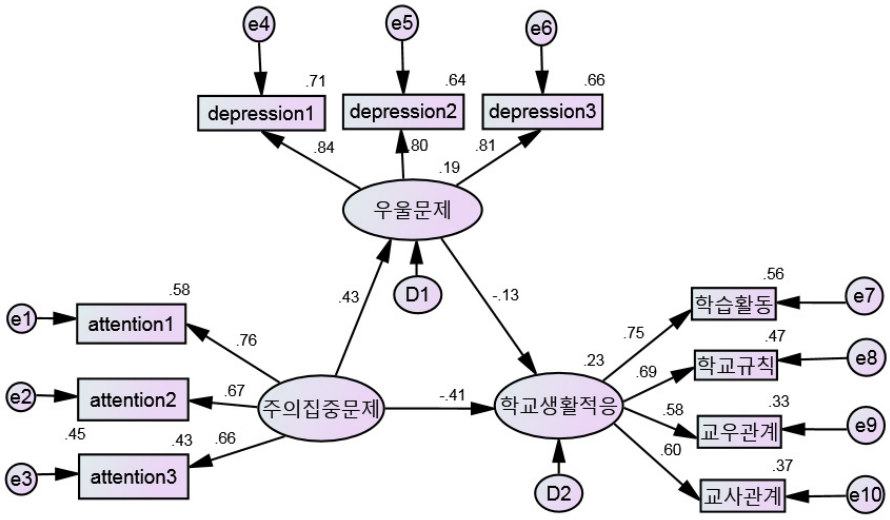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매개모형의 결과

표 3

부분 매개모형에서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 로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SE	*t*값
주의집중 문제→우울	.54	.43	.035	15.29***
주의집중 문제→학교생활적응	-.35	-.41	.029	-12.05***
우울→학교생활적응	-.09	-.13	.020	-4.36***

***p< .001

경쟁 모형은 주의집중 문제가 우울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모형이다. 완전 매개모형은 그림 3, 완전 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 분석하고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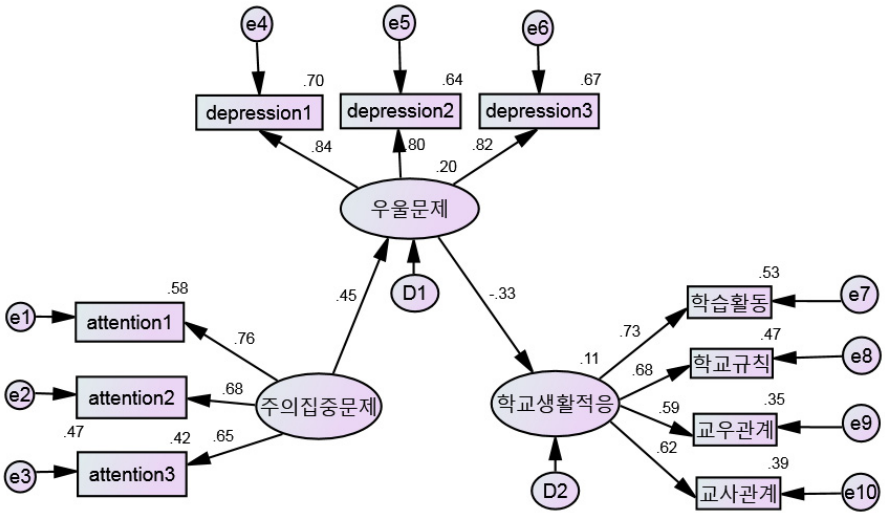

그림 3. 완전 매개모형의 결과

표 4

완전 매개모형에서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SE	*t*값
주의집중 문제→우울	.55	.45	.035	15.63***
우울→학교생활적응	-.22	-.33	.019	-11.84***

***p< .001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χ^2=358.28(*df*=32, *p*=.000), NFI=.952, CFI=.956, TLI=.939, RMSEA=.067로 나타났고,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χ^2=534.39(*df*=33, *p*=.000), NFI=.929, CFI=.933, TLI=.909, RMSEA=.082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χ^2 차이값은 176.1이며, 그 정도의 차이는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이었다. χ^2 차이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분 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표 5
모델 부합도 지수

모형	χ^2	*df*	NFI	CFI	TLI	RMSEA
부분 매개모형	358.28	32	.952	.956	.939	.067
완전 매개모형	534.39	33	.929	.933	.909	.082

부분 매개모형에서 주의집중 문제→우울, 우울→학교생활적응, 주의집중 문제→학교생활적응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했다. 주의집중 문제가 커질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아지며, 주의집중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Z=-4.32, p=.000).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주의집중 문제가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김홍석 외(2013), 신현숙(2009), 이동훈(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이귀옥과 이미리(2013), 최진오(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김명식(2008), 오승환(2009), 최지원과 박영숙(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주의집중 문제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주의집중 문제에서 우울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간접 경로를 가정한 부분 매개모형과, 간접 경로만을 가정한 완전 매개모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완전 매개모형보다는 부분 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의집중 문제가 우울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적응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의집중 문제가 학교생활적응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입을 할 때 주의집중 문제, 우울,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의집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이나 주의집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 등이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우울이 다양한 학교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거나, 정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심층적인 심리검사, 약물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 기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우울증이 외현적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의집중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주의집중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적인 개입만이 아니라 정서적 개입을 통해 주의집중 문제로 인한 2차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 우울을 임상적 진단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보고식 검사만을 통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확한 진단 절차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으로 판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증상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주의집중 문제가 발생한 후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종단연구를 통해 주의집중 문제가 선행된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우울의 문제를 갖게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학생이 발달함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나 우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집중 문제나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우울만을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불안, 공격성,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력 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주의집중 문제,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남아에게, 우울증은 여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김명식 (2008).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645-658.

김민주, 하은혜 (2013). 청소년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13-330.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김정남 (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김청송 (2007).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87-598.

김형숙 (2009). ADHD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부모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61-98.

김홍석, 송연주, 이동훈 (2013). 초등학생의 자기보고 된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31-350.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연구논총, 23**(1), 153-167.

박소영, 조성희 (201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03-225.

박진성, 서만수 (2004). 고등학생의 주의집중력과 학업성적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113-140.

박춘성, 홍경화 (2011). 집중력이 부족한 중학생의 학업성취발달 분석연구. **학습장애연구, 8**(1), 141-166.

변영순, 이혜순 (2008).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및 주의집중력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20(2), 46-53.

서창민, 이종훈, 최태영, 김지현, 신임희, 우정민 (2008).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223-230.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29-646.

신민영, 김호영, 김지혜 (2005).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우울: 자기 개념의 매개변인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03-916.

신현숙 (2009).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27-47.

신현숙 (2012). 남자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2), 1-27.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 (2011).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 소진의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33-152.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온싱글, 김은정 (200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사회적 이해와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93-813.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유연주, 조윤경 (2008).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실태 조사: 교사 행동 평정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169-190.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이경화, 손원경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이대식, 황매향 (2011). **학습부진학생의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이동훈 (2009). 초등학생의 ADHD 중상 유병율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2397-2419.

이동훈, 정원식, 신효정, 이창호, 박관성, 송은미, 백윤미 (2007). **위기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이지민 (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이희은,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1-174.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 적응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질병관리본부 (2012.1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도자료. http://yhs.cdc.go.kr/data/news.asp?act=view&page=1&brdNo=44&board_name=tbl_data_board&keyname=&keyword=&code=report&mnuCD=에서 2013년 8월 10일 인출

최지원, 박영숙 (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수준. **청소년학연구, 18**(9), 265-284.

최진오 (2010). 초등학생들의 ADHD 성향과 학교유대성간의 관계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79-198.

최진오 (201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ADHD 성향, 사회기술수준과 정서적 문제간의 관계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1-20.

한신애,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355-376.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성혜 (2010).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발달궤적 연구: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4), 211-239.

황윤원, 이동훈 (2011).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17-1136.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vision: DSM-5*(5th ed.). Washington, DC: Author.

Flöjd, S. A., Nissinen, E. S., Pelkonen, M. U., Marttunen, M. J., Koivisto, A. M., & Kaltialala-Heio, R. (2008). Depress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31*, 485–98.

Frazier, T. W., Youngstrom, E. A., Glutting, J. J., & Watkins, M. W. (2007). ADHD and achievement: Meta-analysis of the child, adolescent, and adult literatures and a concomitant study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0*(1), 49–65.

Hankin, B. L. (2006). Adolescent depression: Description, cause, and intervention. *Epilepsy & Behavior, 8,* 102-114.

Herman, K. C., & Ostrander, R. (2007). The effect of attention problem on depression: Developmental, academic, and cognitive pathway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2*(4), 483-510.

Hoza, B. (2007). Peer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 719-727.

Kline, R. B. (2005). *Principal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Lewinsohn, P. M., Rohde, P., Seeley, J. R., Klein, D. N., & Gotlib, I. H. (2003). Psychosocial functioning of young adult who have experienced and

recovered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353-363.

Pine, D. S., Cohen. E., Cohen. P., & Brooks, J. (1999). Adolescence depressive symptom as predictors of adult depression: Moodiness or mood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33-135.

Wu, S. Y., & Gau, S. S. (2013). Correlates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functioning among youths with and without persisten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4*, 505-515.

Treuting, J. J., & Hinshaw, S. P. (2001).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boy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ssociations comorbid aggression and explanatory attributional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23-39.

Tymms, P., & Merrell, C. (2011). ADHD and academic attainment: Is there an advantage in impulsivit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753-758.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Jungmin* · Song, Soo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1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undertaken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248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ttention problems and depression were observe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levels. Attention problems had an influenced upon the levels of depression which, in turn, affected the levels of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attention problems were seen to have a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level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ention problems,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levels

투고일 : 2013. 8. 29, 심사일 : 2013. 12. 6, 심사완료일 : 2013. 12. 20

* Yonsei University
**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